

스승의 날 사랑의 사이버 카네이션 행사 축하 메시지

스승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애쓰시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

참다운 스승의 길을 걷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. 옳은 것을 가르치고 이를 몸소 실천하는 솔선의 자세가 늘 요구되기 때문입니다.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을 위한 사랑과 열정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.

하지만 어려운 만큼 보람과 기쁨 또한 큰 것이 스승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국민 어느 누가 스승의 가르침 없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? 저도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.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
그러나 선생님들의 노고에 비해 처우개선은 아직 부족하기만 합니다. 마땅히 가져야 할 스승에 대한 존경심마저 퇴색해 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.

저와 참여정부는 선생님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 드리고, 선생님들께서 긍지와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건설에 꾸준히 힘써 나갈 것입니다.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스승을 존경하는

사회적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이라 믿습니다.

힘내시고, 앞으로도 미래의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동량을 키워 내시는 일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뜻깊은 스승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, 선생님과 가정에 늘 건강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.